Life p/15

'사십견' 환자가 늘어난다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제3147호 www.metroseoul.co.kr

Game p/18

넥슨 - 엔씨 갈등 결말은?

"군대를 왜 가므니까"

신격호 3대 모두 일본 국적 군면제

세습 재벌 문제없나 ◆ 병역 - 롯데그룹 관련기사 p/13

'쓸개 면제' 정의선 국회 "진상 조사" p/3

신동빈 회장 LOTTE

정용진 대박 호프집 가보니… p/14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 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2015 주한호주대사관 호주의 날 행사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호주 쇼케이스' 행사. 왼쪽부터 엄다이, 빌 패터슨 주한호주대사, 소프라노 고미현, 샘해밍턴. /연합뉴스

여당 경제통 "박근혜식 증세 한계"

여당 경제통 의원의 입에서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라는 말이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며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부담 중복지'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식 증세는 물론 '중부담 중복지' 주장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홍종학 의원은 "평소 유연하게 야당과 대화하던 나 의원도 조세소위에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완강하게 버텼는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사실 나 의원 때문에 벌어졌다"고 했다. 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담배삼품권 인지세를 올리는 등 기발한 방식으로 중산층 서민 증세를 꾀했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이번엔 건보료… 여야 '오락가락 정부'에 분통

연말정산과 주민세·자동차세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정책이다. 정부가 또 다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자 여야가 모두 들고 일어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28일)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렸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정 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국정 목표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현정기자

김무성 "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정도여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연 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제'에 대해 "사잠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은 보전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혁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갖고 해야 성공하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밀어붙이나 그건 안 된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개혁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번복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송병형기자

MB회고록 거센 후폭풍

야 "변명으로 일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세종시 수정안 추진 걸림돌 주장에 친박 반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첫 국정회고록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29일 내용이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은 4대강사업·자원외교·세종시 수정안·남북관계 등 이명박정부 때의 민감한 사안을 모두 담아냈다.

야권은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권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무산을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간 비밀접촉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부분을 두고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해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어나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재임 당시 자원외교의 빛나는 성과를 역설했던 이 전 대통령이 국조를 앞두고 책임을 총리실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28건의 VIP(대통령)자원외교를 통해 직접 MOU를 체결한 당사자인 만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국민들에게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추진 과정에 친박이 걸림돌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공학적인 고려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비밀의 축에 의지하는 바가 컸던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라인이 비밀접촉에 대해 꺼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박원순 시장,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역 고가를 보행로로 만드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져 2017년에 재탄생되는 고가, 17개의 보행로, 17m 높이의 고가란 뜻을 담았다. /연합뉴스

지지율 추락 박 대통령 사흘째 '스킨십 행보'

현장 찾아 소통 강화 청와대 일부 "긍정적 영향" 기대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최근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들어 티타임 등을 통해 내각·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늘려 대국민 접촉면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지율의 최저치 경신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최소한의 동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이후 계속된 청와대발 각종 파동으로 지난달 중순께 30%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올들어 연말정산 대란 등이 터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3일 이완구 총리 카드 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한시적 유임과 핵심비서관 3인방의 부분적인 업무 조정 등으로 인적쇄신 효과는 여론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주간 단위가 아닌 일일조사에서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 마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위기상황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언급하며 이후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27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보육시설인 푸르숲 어린이집을 방문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및 향후 대응 대책에 대해 학부모, 원장, 교사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8일에는 새해 첫 영화관을 찾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고 배우·스태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맞춰 광주를 찾아 신·재·연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 강화가 지지율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지만 여권 내에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인적쇄신 등이 뒤따라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총리 후보자의 눈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 면제 의혹>

이완구 차남 'X레이 촬영'

병무청 '병역면제' 관련 개인정부 비공개 원칙
이완구 공개검증 자청…의혹해소 '눈물의 결단'

사회 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엄격했다. 병역면제 의혹을 받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은 29일 의혹 해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다. 이 후보자는 촬영에 앞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을 '비정한 아버지'라고 자책했다. X레이 촬영 결과 이 후보자의 차남은 수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날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차남의 대퇴골과 견골이 터널이 있고 금속물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전에 찍은) MRI 사진을 보면 우물 부위의 연골과 바깥쪽 연골도 박열됐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MRI를 토대로 이 후보자 차남의 전방인대 완전 파열의 원인은 운동 중 흔히 다치는 전형적 사유"라며 "이런 경우 100%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역 문제는) 병무청 소관이라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수술 이전 MRI 검토 결과 이 정도면 수술을 받은 것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5년 12월 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뒤 국내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후보자는 차남에 대해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자 공개검증을 자청했다. 그러면서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병역면제와 관련해 병무청은 개인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후보자는 의혹을 씻기 위해 결단을 내린 셈이다.

/송성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군혁신위 의원 "하사 아가씨가"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아가씨'에게 이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가 울려 퍼졌다. 다름 아닌 혁신위원을 맡은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말이었다. 이어지는 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언의 장본인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하는 관점이 바로 이 문제[현역 여단장의 부하 여하사 성폭행]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송 의원의 '아가씨'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송 의원은 전날 발생한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들리는 얘기로는 여군 하사 성폭행을 한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며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박을 안나가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인식이다. 송 의원은 기무사령관 출신이다. 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한 것이 도가 지나친 셈이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 군 생활을 한 본인이 적절한 군사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여군 부사관들에게 사과했다. 외박 발언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방 부대 지휘관이 정상적으로 부대 지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송성호기자

담낭절제 병역회피용?

국회 "현대차 정의선 유사 사례 진상조사"

'담낭절제'와 같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병역면제 사유가 됐던 이른바 '병역회피용' 의혹이 짙은 질병에 대한 진상조사 움직임이 29일 국회 내에서 일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전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쓸개를 잘라낸 뒤 특이 병력을 이유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 부회장이 병역면제를 받은 당시 국방부령 '신체검사 규칙'에는 담낭절제술이 병역면제 사유가 됐지만 최근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돼 담낭절제술만으로는 병역면제 사유에서 빠졌다.

전문의들은 "담낭절제수술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낭절제술이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년 40만~50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검사하다보니 악용 사례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면제 대상과 관련해 국방부령이 수시로 바뀌는 점도 악용 사례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나 "담낭절제와 같이 병역회피용으로 악용됐을 의혹이 짙은 질병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요청할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송병철기자

마감 앞둔 사랑의 온도탑 '9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마감 이틀 전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뜻하는 100℃에 2.5℃ 모자란 97.5℃를 가리키고 있다. 캠페인은 31일 마감된다. /연합뉴스

'군가산점제 부활' 사실상 무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신에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 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지원의 문제"라며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에서 22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 중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정윤아기자

셔먼 "北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대북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차관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관련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앞서 셔먼 차관은 한미 차관급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에는 대북 정책에 틈이 없다"며 "양국 모두는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통일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셔먼 차관은 남북 간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이 더 있기를, 모든 한국이 다시 통일된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단을 끝내고 한국 국민이 핵무기나 영토에 대한 위협 없이 통일된 나라에서 민주적인 규칙 아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와대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정윤아기자 yoona@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В Москве появился театр-трансформер

metro Portugal

País melhor no índice de saúde

네덜란드인 유럽서 제일 건강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에 뽑혔다. 메트로 포르투갈은 2014년 유럽 소비자 건강 지수에서 네덜란드가 1000점 만점 중 898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가 2~5위를 차지했고 포르투갈은 13위에 그쳤다.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37개국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를 진행한 보건 소비자 파워하우스(HCP)는 "많은 나라의 의료 부문 지출이 줄어들었음에도 전반적인 성과는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metro HongKong

首次非國慶日閱兵 官媒稱要嚇日本人

9월 2차대전 승리 기념 열병식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9월 개최한다. 29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2009년 국경일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과 비교할 때 이번 행진 열병식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국경절이 아닌 기간에 진행하는 첫 대규모 열병식이라 의미가 매우 크다. 군사전문가 국방대학 교수는 "이번 열병식의 주제는 반 파시즘 전쟁에서의 중국 공헌 회고와 세계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과시"라고 분석했다.

'트랜스포머 극장' 가본 적 있나요

모스크바 스탈린스키 극장 새단장…공연 맞춰 홀·관객석 변신에 연출도 자유자재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등장한 '트랜스포머 극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메트로 모스크바는 스탈린스키 극장이 새롭게 단장을 끝내고 손님 맞을 준비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탈린스키 극장은 홀과 관객석을 공연에 따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최신형 설비를 갖췄다. 시민들은 스탈린스키 극장에 '트랜스포머 극장'이라는 애칭까지 붙이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올가 이바쇼바 스탈린스키 극장 부대표는 "1915년부터 극장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사실 극장용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며 "다른 극장에 흔히 마련돼 있는 무대 회전 장치와 무대 밑 공간, 각종 무대 설비 등이 없어 그 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공연의 형태에 따라 관객석과 홀의 배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 극장을 만들게 됐다"며 "이를 위해 수 ㎞에 이르는 와이어와 104개의 윈치(도르래)를 이용해 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는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확 달라진 극장의 모습에 공연을 준비하는 극단들도 신이 났다. 스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을 준비중인 극단 대표 보리스 유카나노프는 "예전에는 배우들이 사용하는 회구가 한 개뿐이라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제는 관객석 앞에 마련된 특수 공간을 이용해 배우들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깜짝 등장할 수 있다. 다양한 장치 덕분에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연 연출이 가능해져 좋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모스크바에 역사와 첨단 설비 모두를 갖춘 극장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연극과 발레 공연이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슬레나 카로포바 기자·정리 허국민기자

metro Ecuador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자체 번식

멸종 위기인 갈라파고스 땅거북이의 자체 번식 사실이 100년 만에 확인됐다고 메트로 에콰도르가 보도했다.

개체 수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9세기 초반 섬에 도입된 야생 염소 때문이었다. 거북이들은 건기에 키 큰 선인장나무에서 떨어지는 이파리를 먹고 사는데, 야생 염소들이 섬의 초목 대부분을 먹어 치우는 과정에서 선인장 나무의 줄기와 뿌리를 파먹어 고사시켰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들어 멸종 위기가 심화되자 문제 해결에 착수한 동물 보존가들은 우선 야생 염소들을 섬에서 몰아냈다. 1990년대에는 섬에 단 한 마리의 야생 염소도 남지 않게 됐다.

나중으로 보존가들은 남아있는 거북이들을 인근 한 섬의 제한된 장소에 몰아 두고 번식을 유도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번식에 개입함으로써 1500마리 정도의 새로운 아기 거북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번식돼 섬으로 도입된 거북이들이 스스로 자생력 있는 번식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섬에서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 땅거북이가 태어나기도 했다.

동물 보존가들은 "이제 우리가 빠져나와도 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번식 체계는 회복됐을지언정,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리=장윤희기자

주택대출 20조원 장기·고정금리로

금융위, '가계부채·청년·고령·기업' 맞춤형 지원안 내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0조원 한도의 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한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햇살론을 도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장수위험을 대비한 고령층 특화 상품도 출시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20년만기 2%대 고정금리대출 출시

금융위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 20년 만기의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키로 했다.

이는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의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세에 2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시 1억4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소득공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져 금리상승시에도 추가부담이 없다. 약 1000만원(대출기간 합계)의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

◆청년-고령-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선 생활자금,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기존의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려가며,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오른다.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내놨다.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늘렸다.

100세 시대를 맞아 예상보다 오래 사는 장수위험을 대비한 특화 상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을 연내 출시키로 했다.

이는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이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구조다.

금융과 IT 융합을 위해선 핀테크 산업 육성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마련된다. 또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3.0'을 통해 기술 기반 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된다.

이밖에도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회수까지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모험자본시장 역시 활성화된다.

고 사무처장은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 금융 180조원도 공급할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규범 재정비 등 금융권 신뢰회복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신보, 대구혁신도시로 신사옥 이전식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29일 대구혁신도시 신사옥에서 본점 이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신보는 지난 2010년 12월 부지를 매입한 후 2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보는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금융공기업으로 대구시가 지속성장 가능한 창조도시로 발전하는데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신보가 최고의 금융공기업으로 발선하고 대구지역에서 모범적인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근대 제조업의 발상지인 대구지역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경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구시가 전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청년창업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과 열정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신보가 대구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아란기자

수은, 주요 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5년 주요기업 CEO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덕훈(가운데) 수은 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외국인 관광객, 작년 11조원 긁었다

카드 지출액 절반 요우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지출액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신한카드와 한국문화정보원이 발표한 '2014년 외국인 사용카드 국내 사용액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38.8% 증가한 수치로, 내국인의 지난해 카드 사용액인 460조원의 2.4%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사용한 지출액 비중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인(15.4%)과 미국인(7.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국인들은 전년 대비 62.6%가 증가한 6조1300억원을 결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2월 양양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청주, 김해공항 등에서 중국 관광객의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17위를 차지한 카자흐스탄의 경우, 결제 비중은 0.4%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허가된 무비자 입국과 지자체의 의료 유치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3년 사용액에서 110.7%나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쇼핑 지출액이 5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47.7%를 차지했다. 이어 숙박(34.1%)과 음식(7.8%), 의료(4.6%) 순으로 지출액이 높았다.

특히 의료업종의 경우 의료 유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1.3%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사용한 돈이 7조9200억원(72.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부산, 인천, 제주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안에서는 명동이 있는 중구가 지출액의 30%를 차지했고,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구가 13%를 기록했다.

한편 지출액 증가율은 제주가 104.6%로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뿐 아니라 홍콩, 대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카드이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개발에 활용,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의료와 스포츠분야 등 세부업종까지도 분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당국의 통계데이터와 연계하는 등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1951.02	(-10.58)
코스닥	583.12	(-1.27)
금리	2.00	(변동 없음)
환율	1093.90	(+9.40)

뉴스&뉴스

SNS에 지인 응원하면 류현진 싸인볼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류현진 선수와 함께하는 대국민 축하이벤트' 두 번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 제공

삼성생명, 당기순익 1조3610억

● 삼성생명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361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9114억원)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삼성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결산실적을 승인했다.

총자산도 2013년 말 193조원에서 214조원으로 11% 늘어났다.

다만 수입보험료는 2013년 초 세제개편을 앞두고 일시납 연금 등이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7% 감소한 22조9083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장성 상품 중심의 영업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면서도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주식(747만주)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1회성 이익(3614억원)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작년 영업익 8653억

● 삼성카드는 29일 지난해 영업이익이 8653억7263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9.7%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같은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3.7%, 140.1% 증가한 3조5218억4657만6000원과 6560억2498억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이날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결산배당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2.2%이며 배당금총액은 1154억6만5000원이다.

삼성카드측은 또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주총 예정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의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바00176

동부·삼성화재 베트남 시장 본격 경쟁

동부, 현지 우량업체 PTI손보 인수
삼성, 지난해 외자사 중 점유율 1위

동부화재가 베트남 현지 손해보험사를 인수하면서 현지에서 독립법인을 운영 중인 삼성화재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화재는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손보사인 PTI(Post & Telecommunication Insurance)의 지분 37.32%를 인수, 1대 주주지격을 확보했다.

PTI사는 지난 1998년 정보통신부 산하 국영 기업인 베트남우정공사(VNPost)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됐다.

이 업체는 2013년 기준 베트남 시장점유율 7.2%로 29개 손보사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영업과 보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량 손보사로, 자동차보험시장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고객 DB 활용 가능성을 보유한 손보사로서 향후 주가 성장 여력이 높은 회사로 평가 받고 있다.

앞서 동부화재는 최근 동부캐피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베트남 지역에서 할부금융을 통한 현지공략도 가능하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자량구매고객은 60% 이상이 할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 확산에 따른 자량 판매량 증가로 할부금융업이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동부캐피탈을 이용해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베트남 보험시장에 현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업 확장 플랫폼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화재가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현지에 먼저 진출한 삼성화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화재는 현재 베트남 국영재보험사 '비나 리'와 합작한 독립법인 '삼성비나'를 운영 중이다.

삼성비나는 현지에서 3.7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외자계 21개 보험사 중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도 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계 불황과 경쟁 과열로 지난해 4분기 7개 주요 손보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5%, 전분기 대비 52.1%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보험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1조90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16% 이상 성장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손보사는 29개사다.

/김희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융사 '혁신성평가' 세밀해져야

기자 수첩

백아란 <경제부 기자>

"(보신)주의를 타파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외환이나 소매금융제품 각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규모도 다른데 성적순에 따라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기면 혁신이 아닌 눈치만 늘 것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은행 혁신성 평과 결과'에 대한 한 시중은행 임원의 한숨 섞인 우려다.

이날 금융위는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체 은행을 일반과 지방, 특수은행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분야별 점수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등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이 개혁을 의지며 야심차게 내놓은 '은행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혁신성 우수 은행에 온렌딩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임직원 성과급에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데 혁신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보, 기보 출연료가 70억원 가량 삭감되는 것이다. 반면 꼴찌를 기록한 씨티은행과 SC은행은 28억원, 47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의 자발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기술금융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은행별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적과 순위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취지는 안지만 외인 주주나 해외투자자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경영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임직원의 성과급에 혁신성이 반영될 경우,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혁신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불도저가 아니다. 두번째 혁신평가에는 더 세밀한 답안이 담겨야 한다.

"롯데월드몰 진동, 안전에 문제 없다"

최근 의류매장에서 진동이 발생해 또 다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 대해 대한건축학회 등 전문가들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위원회는 29일 오전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건축물의 소음과 진동'을 주제로 시공기술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층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공조실과 직접 연결된 조명레인의 조명 흔들림을 구조체 떨림으로 인식해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해당 구간의 진동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진동의 10분의 1, 안전성에 위협을 주는 진동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건축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해 수족관과 영화관 안전진단 결과 등이 담긴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지난주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 시민자문단에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옥 기자

신한생명, 저소득층 어린이 위한 '사랑의 도시락 KIT' 봉사활동 실시 신한생명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본점 별관에서 '설맞이 사랑의 도시락 KIT(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성락(가운데) 신한생명 사장과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도시락 키트를 만들고 있다. /신한생명 제공

주택 분양 성공에 기지개 켠 건설사

GS건설·대우건설 흑자전환 성공… 현대산업개발도 확실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한 해의 경영 성과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 그 중 주택 분양시장에서 선전을 보인 GS건설과 대우건설의 흑자전환이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실적 발표 전까지 2013년 해외 저가 수주의 여파로 적자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7일 GS건설은 2014년도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 511억원에 순이익 8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비 0.9% 감소한 9조4795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익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2분기 110억원으로 무려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후 3분기 240억원, 4분기 340억원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부문의 성과가 돋보인다. 지난 한 해 총 1만4000여가구를 분양한 이 회사는 90%에 달하는 계약률을 보였다. 박상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 주택 매출총이익률은 14.5%를 기록, 국내 원가율 개선을 견인했다"며 "미착공PF 현장으로 우려 프로젝트였던 김포한강센트럴자이의 완판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올해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회사는 올해 1만7800여가구를 신규분양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 10조3000억원, 영업이익 1996억원을 예상한다"며 "주택 분양시장 개선세와 양질의 해외 프로젝트 증가로 점진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9조853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대우건설은 영업익 4155억원, 순이익 1073억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익은 지난해 2531억원의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회사 측은 매출 신장의 원동력으로 성공적인 분양성적을 꼽았다. 주택·건축 부문이 지난해 대비 33.0% 늘어난 5조184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신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대우건설은 올 해 2만7000여가구를 신규분양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큰 물량으로 지난해 대비 약 138% 증가한 수치다.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부문 매출은 2017년까지 증가하고 이익률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매출 4조2169억원으로 전년대비 26.9% 증가했지만 147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현대산업개발도 흑자전환이 확실해 보인다. 박상연 연구원은 "2014년 매출은 4조5000억원에 영업익 2200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자체주택 매출총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100%에 가까운 분양률로 현금 흐름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kimcd504@metroseoul.co.kr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美 연준 6월 기준금리 인상 예정대로?

'인내심' 표현 두달째 유지…강경 입장으로 논란 일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매파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논란을 잠재웠다.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하락,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이 불거졌으나 연준은 강경 입장으로 이를 일축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6월쯤 금리가 인상된다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준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It can be patient in beginning to normalize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고 밝혔다.

관건이 된 '인내심'이란 표현을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 이어 이달에도 유지했다.

당시 연준은 이전까지 고수하던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란 표현을 이처럼 대체했다. 이들 표현은 금리인상 시기가 임박했거나 뒤져질 가능성을 시장에 암시하는 역할(포워드가이던스)을 한다.

특히 1월 성명에서는 "이 가이던스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서도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종전 성명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부연설명이 아예 빠졌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으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오는 6월 단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홍석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회의 결과로 퇴색됐다"며 "연준이 경제여건과 고용시장 등 경기 판단에 긍정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연방금리선물 등을 고려할 때 오는 6~7월이 시장에 대한 가장 유력한 시장의 컨센서스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1월 미 FOMC 성명은 내용 면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특별히 매파적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란 시각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여타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에 따른 미 달러의 강세와 미 기업의 수익성 악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등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비둘기파적 내용이 전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리인상 시점이 6월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직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금리인상 착수시점을 올해 4월 이후로 제시했으므로 오는 4, 6월 중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채권전략 연구원은 "연준에서 경제지표와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인 시각을 표명했다"며 "6월 정도를 인상 시점으로 보는 기존 컨센서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FOMC 성명에서 '인내심' 문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팀장은 "금리인상이 오는 6월 단행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르면 3~4월 성명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6월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놔 논란을 가열시켰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시점은 올해 말이었고, 보킨스텐리는 내년 초를 제시했다.

서 연구원은 "이번 성명 발표로 경기회복 둔화로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기존 컨센서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형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거래소 해외사업 추진 속도낼 듯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해외사업 추진 등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거래소자회사)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316개 기관을 지정하면서 거래소와 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에 대한 지정은 해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초 정부로부터 과다한 보수 등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 성과가 뚜렷하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1인당 130여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70% 가까이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같은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 해제의 또 다른 걸림돌이던 독점성도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ATS)가 허용되면서 해소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해제에 따른 방만경영 재발 우려에 대해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통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동력 삼으로 해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기재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까닭에 대규모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와 파생상품시장본부 등 전 본부에 마케팅 부서를 설치, 사업본부별 경쟁을 통해 영업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기자 purple@

우리은행·신보, 성장 유망 중기 지원 MOU 체결 우리은행은 29일 신용보증기금과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서근우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유가 하락, 세계 소비경제에 호재되나

최근 유가 하락이 소비여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소비주'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관련주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계 원유시장 규모는 지난해 배럴당 평균 유가 95달러 기준으로 3조2000억 달러에서 올해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 55달러를 기초로 추정할 때 1조9000억 달러로 줄어든다. 그 차액은 1조3000억 달러다.

이에 따라 1조3000억 달러가 산유국이나 석유생산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전세계 소비자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생긴다. 실제로 이달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서며 소비심리가 빠르게 호전됐다.

송흥익 대우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저유가, 저금리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에너지 지출과 이자비용 감소가 동반되며 향후 소비여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국면"이라며 "결국 글로벌 소비주가 최고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화장품, 호텔·레저 등 중국 소비 관련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주가 유망하다고 송 연구원은 전망했다. 또 해외 투자 쪽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경기소비재 상장지수펀드(ETF)와 필수소비재 ETF, 중국 상하이시장의 경기·필수소비재 인덱스 구성 종목을 꼽았다.

마주옥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상반기에는 소비관련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이 여전히 소비쪽으로 나타나겠지만, 이 같은 소비쪽 회복이 하반기 투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약 2분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은택 SK증권 연구원은 "저유가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악영향이 먼저 반영되고, 긍정적 효과는 천천히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가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략 2분기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유가가 이번 2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유가 하락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소비주와 기술주의 경우, 저유가 현상이 어느 정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후 주당순이익(EPS)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j@

ELB 1종·ELS 1종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30일 오후 1시까지 파생결합사채(ELB) 1종과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1종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제41회 ELB는 KOSPI200과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간 운용되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제200회 ELS는 KOSPI200과 HSCEI, EURO 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간 운용되는 원금비보장형 월지급식 상품이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삼성전자 영업익 5조… 반도체가 살렸다

스마트폰 소폭 상승 그쳐 … 돌파구 마련해야

지난해 4분기 5조원대 영업이익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수훈갑은 역시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52조7300억원, 영업이익 5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직전 3분기(47조4500억원)보다 11.13%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직전 3분기(4조600억원)보다 30.24%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반도체 부문이 4분기에 2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두 분기 연속 정보통신·모바일(IM부문)을 상회했으며, 4분기 영업이익의 51%를 반도체에서 벌어들였다.

반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IM 부문은 최악의 실적을 냈던 3분기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M 사업부는 26조2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7% 증가에 그쳤다. 또 영업이익은 1조9600억원으로 전분기의 1조750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당분간 반도체 부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D램 등 메모리 시장은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LSI 사업부는 올해 14나노 3D 핀펫(FinFET) 공정의 양산화 등을 통해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디스플레이 사업(삼성디스플레이)은 무선사업부 의존도를 털어내기 위해 최근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올해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 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메모리반도체사업부 백지호 전무는 컨퍼런스콜에서 "올 하반기에 20나노 공정에 대표 D램 공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20나노 공정은 삼성전자의 기존 주력 25나노 공정에 비해 30% 이상, 경쟁사들의 주력인 29나노에 비해서는 50% 이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가까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도체 의존도를 높이기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바로 막대한 자금을 통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부문 기술력은 미진하지만 중국 정부가 특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600억 위안(약2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자국 반도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약 10조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범LG가 구본호·효성 조현준 손잡는다

정보기술 영역 확장

범LG가 3세 구본호(40)씨와 조현준(47·사진) 효성 사장이 손잡고 사업영역 확장에 나선다.

LG그룹 범계 종합물류회사인 범한판토스 매각을 추진 중인 구본호씨가 조현준 효성 사장과 함께 정보기술(I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범한판토스가 29일 밝혔다.

구씨는 최근 효성그룹 계열 전자결제 전문업체인 갤럭시아컴즈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신규 IT 사업에 조 사장과 공동으로 400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할 IT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6촌 동생인 구씨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재벌가 3세로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모친인 조원희 회장과 함께 보유한 범한판토스 지분 97% 가운데 82.1%를 LG상사와 LG가의 우호주주에게 5066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지난주 체결했다.

구씨는 이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를 국내 IT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계획의 하나로 우선 지난 27일 갤럭시아컴즈 지분 14.48%를 165억원에 인수하며 3대 주주가 됐다.

갤럭시아컴즈는 전자상거래, 모바일마케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전자결제 솔루션 업체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돼 있다. 조 사장이 지분 35.02%, 효성ITX가 13.64%를 보유해 1·2대 주주다.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하게 된 구씨가 최근 조 사장과 손을 잡은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효성 전략본부장을 맡아 섬유, 정보통신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 사장은 수출과 B2B(기업 간 거래) 위주인 효성의 사업 영역을 내수와 B2C(기업과 소비자 거래)로 넓히는 전략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조 사장은 특히 IT를 비롯한 신사업에 관심이 많고 갤럭시아컴즈를 비롯해 갤럭시아코퍼레이션, 갤럭시아디스플레이, 갤럭시아디바이스 등을 이끌고 있다.

/양성훈 기자

LG전자 "스마트폰이 효자"

영업익 5년래 최대치 MC사업본부의 실적

LG전자가 지난해 대폭 성장한 성적표를 내놨다. LG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59조408억원으로 2013년 대비 4%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3년 대비 46% 증가한 1조8286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이익을 올렸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스마트폰 사업과 TV사업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MC사업본부의 실력이 돋보였다. MC사업본부는 전략 스마트폰 'G3'(사진)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은 15조 574억원, 영업이익 3119억원을 달성하면서 2010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342% 대폭 증가했다.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년대비 24% 늘어난 591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해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전체 휴대폰 판매량도 전년대비 10% 늘어난 7820만대였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스마트폰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TV사업은 지난해 중국 업체의 공격 가격 공세와 패널가격 인상 등의 악재를 딛고 견조한 성장을 이뤘다. HE사업본부는 전년 대비 매출액(1%)과 영업이익(31%)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TV시장 성수기를 맞이한 4분기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도 영업이익이 17억원으로 전년동기(1530억원)는 물론 전분기(1342억원)보다도 크게 하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 통화 약세와 성수기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LG전자의 실적을 이끌어온 가전와 에어컨은 지난해 다소 부진하면서 가전명가의 자존심을 구겼다. 가전 사업을 펼치고 있는 HA사업본부는 시장 경쟁심화와 환율 영향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AE사업본부도 상업용에어컨은 지속 성장했으나 국내 가정용에어컨 시장 침체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다.

/정혜은기자 huang@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선위, 일본·독일 벤치마킹

현대자동차 노사가 이달 초 독일의 자동차업계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일본을 답방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와 회사측 대표, 외부 자문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는 2월3~5일까지 일본 자동차업계를 방문한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자문위원들은 일본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일본 생산직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과 현대차 임금사례 비교 및 기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일행은 일본 도요타의 생산직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요타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청년층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26년 만에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개선위원회는 해외 방문을 마친 뒤 2월 말께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임금이 지금처럼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 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숙련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제도의 유연화를 추진 중이다.

1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한 수당 체계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년 60세까지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고정비용이 늘어나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동차 공장의 대표적 생산 지표인 1대당 투입시간(HPV·Hour per vehicle)을 보면 현대차 국내공장의 생산성과 해외공장의 생산성에는 큰 격차가 있다.

/정동훈기자 fyn@

현대엘리베이터, 사상 최대 실적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매출 1조2110억원, 영업이익 1288억원, 영업이익률 10.6%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이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7%, 영업이익은 24.9% 영업이익률은 0.9%p 성장한 수치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해 국내시장 점유율은 45.4%(신규 설치 기준)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8년 연속 1위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14년 실적은 외적 성장은 물론 동북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국내 최고속(분속 600m) 승강기를 설치하고, 국내 최초 엘리베이터 화상점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등 기술력에 바탕을 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3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승강기 전량(6930만 달러, 1668대) 수주를 신호탄으로 브라질 공장 준공, 베트남 신규 법인 설립과 4개 해외대리점 신설, 터키 아스타넬 자하절 승강기 수주(1310만 달러) 등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0% 지분을 확보한 상해현대전제제조 유한공사를 비롯한 해외 법인은 판매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결결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확충했다.

노사간 상생 문화도 현대엘리베이터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26년 연속 무분규 행진을 이어갔으며 노사가 공정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2013년 70대였던 일간 최대 생산량을 80대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여성일기자

대한항공, 올해 승무원 900명 채용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약 900명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매년 약 600명 규모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0% 늘어난 수치다.

대한항공은 신규 노선 확대 등 공급 증대와 차세대 중·대형 항공기의 지속적인 도입에 따라 객실승무원 수요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올해 첫 공개채용은 약 200명이다.

이날부터 2월 9일까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recruit.koreanair.co.kr)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15년 8월 졸업예정자로 △TOEIC 550점 이상(TOEIC Speaking Level 6 또는 OPIc Level Intermediate Mid 1 이상 자격 소지자도 지원 가능) △교정시력 1.0 이상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 면접과 신체·체력검사 등 전형 절차를 거쳐 5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절차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성일기자

삼성중공업, 영업익 1830억… 80% 감소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2조8791억원에 영업이익 1830억원의 경영실적을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13.2% 줄고, 영업이익은 80%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473억원으로 76.6%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공사손실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에 따르면 매출 감소는 일반상선 건조물량 감소와 일부 프로젝트 공정지연의 영향을 받았다.

영업이익 감소는 지난 1분기에 이지스(Ichthys) 에지나(Egina) 등 2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예상 공사손실 약 5000억원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지난 1분기에 대규모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인해 362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이후 경영실적이 정상화되면서 누적 영업이익은 183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 EPC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하면서 연간 재무실적이 악화됐다"면서 "Change Order(공사비 추가정산) 발굴 등 프로젝트의 손익개선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 상세설계 역량 확보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근본적인 해양 EPC 경쟁력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일기자

LG화학 실적 뒷걸음질

돌파구 마련 고심… 전망은 '글쎄'

LG화학 박진수 사장이 여수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G화학 제공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넘겼지만 LG화학 실적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화학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13.1%, 2분기 28.3%, 3분기 30.8%, 4분기는 26.8% 각각 감소했다. 유가급락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중동의 화학제품 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수출 둔화가 매출악화로 이어졌다.

사해에는 삼성의 화학분야를 인수해 몸집을 키운 한화의 추격까지 받는다. 한화케미칼은 삼성과의 M&A로 화학 분야 매출이 18조~20조원으로 늘어난다. LG화학의 연매출 17조5000억원을 뛰어넘어 업계 1위로 도약했다.

자동차용 2차전지는 LG화학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말부터 현지 투자회사 2곳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난징시에 연간 전기차 10만 대분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사측은 난징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중국 내 생산 물량만으로도 2020년까지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성장을 위한 돌파구 찾기에 바쁘다.

실제로 전지부문은 지난해 4분기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익성을 따져보면 영업손실액이 61억원이다. 현재 투자 역시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동력도 물색 중이다. 박 부회장은 작년 한해 연구개발(R&D) 부문에 전년보다 31% 증가한 59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무기 나노소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어진규 서울대 화학부 교수를 전무급인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보였다. 이 교수는 2월부터 신개념 전지소재와 유-무기 하이브리드 복합체 등 무기소재 분야의 연구를 총괄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도 강화한다.

LG화학측은 "연구개발을 통해 마음대로 휠 수 있는 플렉서블 조명 생산을 비롯해 발광효율과 수명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OLED분야의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돌파구는 마련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LG화학은 올해 목표 매출액을 지난해 대비 0.4%가량 줄인 22조4830억원으로 잡았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목표에 역시 반토막난 유가에 비하면 높게 잡은 수치"라며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목표보다 매출액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영업익 2배 상승한 현대제철

<현대제철 실적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율
매출액	12[illegible],147	160,329	25.1%
영업이익(이익률)	7,166 (5.6%)	14,400 (9.0%)	100.9% (3.4%p)
당기순이익(이익률)	6,820 (5.3%)	7,511 (4.7%)	10.1% (△0.6%p)

현대제철은 지난해 매출액 16조329억원, 영업이익 1조4400억원, 당기순이익 7511억원의 경영실적을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5.12%, 영업이익은 100.95%, 당기순이익은 10.13% 증가한 수치다.

사측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제품생산량은 20.1% 증가한 1910만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량은 29.7% 증가한 822만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

고로 3기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냉연사업 합병을 통해 고부가가치 철강재 증산으로 제품구성을 다각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철강재 수입 증가와 수요산업 부진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철비를 줄이고 설비·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5372억원의 원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냉연부문 합병에 따른 생산 및 품질 통합관리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1609억원의 합병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또한 2013년 3고로 완공으로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3년 12조7004억원에 달하던 차입금을 11조9884억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0.1% 수준이던 부채비율은 108.8%로 11.3%p 낮췄다.

자동차 소재 전문 제철소 완성을 위한 설비투자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착공한 연산 100만톤 규모의 특수강 공장은 25일 기준 40.8%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2016년 2월 양산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 그룹 간 소사업이 인수 예정인 동부특수강과 소재 개발 시너지를 높여 특수강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강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 2냉연공장에 증설 중인 연산 50만톤 규모의 2CGL(제2용융아연도금강판설비)도 25일 기준 21.5%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2016년 2월 제품 양산을 준비 중이다.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2013년 자동차 전 강종 개발을 완료한 현대제철은 지난해 초고강도 강판 제품 연구개발에 주력했다.

올해부터는 조선/해양 후판 개발과 자동차용 고품질 특수강 개발을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지속되는 철강시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 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과 고객 맞춤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해 올해에는 판매량 1972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일기자

'3밴드 LTE-A' 소비자 반응 싸늘

구형 단말만 인기 — 갤럭시노트3·아이폰5 등 지원금 대폭 상향

KT가 지난 26일 '갤럭시노트4 S-LTE' 출시에 맞춰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 놀이 에비뉴 매장에서 전 고객 대상 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KT 제공

이동통신 3사가 '3밴드 LTE-A' 서비스 가입경쟁이 한창이지만 적용단말기 지원금 차이가 커 구형모델인 갤럭시노트3·아이폰5S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지난 26일부터 3밴드 LTE-A 서비스를 지원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3밴드 LTE-A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이통 3사가 본격적인 '3밴드 LTE' 시대를 여는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30일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G플렉스2'를 이통 3사를 통해 출시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졌다.

그동안 이통 3사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할 정도로 주목해 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고객 체험단을 통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 단말이 아니고, 일반 유통매장에서 구입할 수도 없다"며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처럼 이통 3사가 심혈을 기울인 3밴드 LTE-A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3밴드 LTE-A 서비스로 인해 네트워크 속도는 다소 빨라졌지만 새로운 서비스라던지 맞춤형 콘텐츠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시 15개월 이상의 인기 스마트폰에 이통 3사가 공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출시된 지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 범위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KT는 28일 아이폰5S에 대해 공시 지원금을 기존 22만6000원에서 81만4000원(순완전무한 77 요금제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고가가 81만4000원인 아이폰5S 16GB의 경우 사실상 공짜폰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출시 15개월을 넘긴 갤럭시노트3에도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갤럭시노트3는 69요금제 이상을 이용하면 10만~20만원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기 단말에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면서 오히려 최신 단말의 발목을 출시 15개월 이상의 구형 단말이 붙잡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 갓 출시된 갤럭시노트4 S-LTE의 경우 지원금이 10만~30만원에 불과하면서 여전히 60만~80만원대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해 수요가 적은 상황"이라며 "반면 아이폰5S, 갤럭시노트3 등 한 때를 풍미했던 인기 단말기들이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막상 이통사가 3밴드 LTE-A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와닿는 체감 속도는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송재호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오른쪽)가 이태원 퀄컴코리아 부사장(왼쪽)과 29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LTE 기반 사물인터넷(IoT)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제공

KT·퀄컴,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 협력

KT가 미국 퀄컴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보안이 강화된 LTE 기반 IoT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29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송재호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상무와 이태원 퀄컴코리아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LTE 기반 IoT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보안 통합 관제, 단말 제어 등이 탑재된 LTE 기반의 IoT 보안 게이트웨이 장비와 전체 솔루션 개발을 맡게 된다. 퀄컴은 보안 게이트웨이에 최적화된 LTE 칩셋 관련 기술 지원을 맡는다. 또 창조경제 및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WCDMA·LTE 게이트웨이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인 넥서스(MEXUS)도 함께 개발에 참여한다.

IoT 게이트웨이는 통신망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LTE·WCDMA를 통해 송수신 할 수 있는 장비다. 이번에 개발하는 IoT 보안 게이트웨이는 LTE·WCDMA 외에도 와이파이(Wi-Fi), 지그비(Zigbee), 블루투스(Bluetooth) 등 저전력 무선 근거리 통신을 모두 지원한다.

또한 가상사설망(VPN), 통합보안솔루션(UTM) 등 필수적 보안 기능과 통합관제 및 단말제어 기능까지 탑재한 국내 최고 성능의 IoT 통합보안솔루션 상품이다.

KT는 올 상반기 내 IoT 보안 게이트웨이 개발을 완료한 후 IoT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상용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반인프라사업자, 금융과 같이 보안이 중요한 고객사에게 IoT 기반의 맞춤형 보안, 관제 등을 제공해 국내 IoT 보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재호 상무는 "수많은 IoT 기기들의 인터넷 연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안 위협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신뢰성 있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T의 우수한 네트워크, 보안 및 IoT 관제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IoT 보안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SK텔레콤, 작년 마케팅비에 울었다

영업이익 9.2% 감소…가입비 폐지·멤버십 혜택 확대 직격탄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누적 영업이익 1조8251억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7조1638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799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11.8%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 및 B2B솔루션 등 신규사업 매출 증대, 자회사 성장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다. LTE서비스 브랜드로 SK텔레콤의 LTE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73만명을 기록, 전체 가입자의 58%를 넘어섰다. B2B 솔루션 사업 등 신규 사업 매출도 전년 대비 12.7%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 감소는 가입비 폐지, 멤버십 혜택 확대 등 고객 혜택 강화 등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가 원인이었다. 지난해 마케팅비용은 3조5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소 늘었고,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조7993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가입비를 50% 인하한데 이어 11월 업계 최초로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12월에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을 폐지하는 등 고객 통신료 부담을 경감했다.

올해도 SK텔레콤은 고객 가치 중심의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반의 데이터 이용 패턴 혁신, 진화된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상품·서비스 출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5G 이동통신과 관련, 2018년 시연,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파트너 기술 선행개발 등 네트워크 구조 혁신을 지속 선도할 예정이다. 기술 검증과 시연을 위해 5G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도 연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4조2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5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다. /이재영기자

SK C&C, 행복장학금 8700만원 전달

사내 온라인 성금 모금…저소득 가정 청소년 돕기

SK C&C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 27층 비전룸에서 성남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2015년 행복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두 SK C&C SKMS 실장, 홍경자 가이대제본부장과 SK C&C 구성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행복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격려했다.

SK C&C는 중학생 23명, 대학의 예정자를 포함한 고등학생 42명, 대학생 10명 등 총 75명에게 8700여만원의 행복장학금을 전달했다.

행복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충실한 성남지역 모범 학생들로, 성남시 관내 학교의 가이대제본부 등 복지 기관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이날 전달된 행복장학금은 지난해 구성원들이 사내 온라인 성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SK C&C는 학생 75명 한 명 한 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선물을 전달해 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다.

김병두 실장은 "행복장학금을 통해 내일의 희망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SK C&C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신동빈 일가 3대 모두 일본국적 탓 병역 면제

3세 후계 유력 장남 신유열도 병역의무 없어

롯데그룹 모녀 일가는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41살 때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며 병역을 피해갔다. 1955년 2월 출생인 신 회장은 그 해 4월 한국에 호적을 올린데 이어 10월 일본 호적에도 등재됐다. 당시 한국의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신 회장은 1996년 6월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2개월 만인 같은 해 8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롯데가의 3세 후계자로 유력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29)씨도 현재 일본 국적자로 병역 의무가 없다. 유열씨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인 부인 시게미쓰 마나미씨와의 사이에 장남 유열 씨와 규미(27), 승은(23) 씨 두 딸을 두고 있다.

최근 일본롯데 경영권에서 밀려난 신동빈 회장의 형 신동주(62)씨도 일본 국적 덕분에 군 소집을 피해갔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병역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16세 후반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한 것을 볼 때 일본 국적을 취득해 면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는 식음료, 유통 등 내수산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현재 70여개 계열사에 연 매출 80조원대 거대 재벌로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터전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입국,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부루마블 게임하고 선물 받고 롯데면세점은 30일부터 본점과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3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롯데면세점 부루마블'을 선착순 증정한다. 이 중 35명은 부루마블에 동봉된 선물 카드 10만원권의 행운을 갖는다. /롯데면세점 제공

인천공항 면세점 누구 품에?

롯데·신라·신세계·한화, 하나투어도 입찰

세계 1위 매출을 자랑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 신세계와 한화갤러리아가 도전장을 던졌다. 롯데와 호텔신라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항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제3기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이날 롯데와 호텔신라 뿐 아니라 신세계와 한화, 동화면세점 등도 인천국제공항 3기 면세사업권 입찰 의향서를 인천공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메이저 유통사들은 거의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셈이다. 다만 후보로 거론됐던 현대백화점과 워커힐 등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대표적 유통채널 전문 그룹 신세계의 인천공항면세점 입점은 유통채널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화 역시 제주공항면세점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진출을 모두 노린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업체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계 면세점을 비롯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세계 면세업계 1위 DFS그룹과 2위 듀프리(Dufry)도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 입찰에는 화장품 회사인 참존을 비롯한 동화면세점, 하나투어 컨소시엄 등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역량을 겨루는 보기 드문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조1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공항 면세점 매출이 연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12개 구역으로 나뉜 면세 영업장 중 8개는 대기업,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다. 4개의 중소 중견기업 구역의 경우 동일 업체의 구역 중복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4개 업체가 한 구역씩 맡게 된다.

/김보라기자

"해외명품 싸게 사세요"…백화점 대규모 할인전

백화점업계가 대규모 해외 명품 브랜드 할인 행사에 나선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겨울옷 판매가 부진했던 탓에 백화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내놓고 행사 기간도 늘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본점 에비뉴엘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8개 점포에서 '제13회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8개 점포 기준으로 2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1500억원 물량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본점 에비뉴엘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르니, 아르마니꼴레지오니, 브루넬로쿠치넬리, 엘리든 총 5개 브랜드가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이어 다음달 5~8일 본점 행사에는 단일 점포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 50개 늘어난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총 1000억원 물량을 선보인다.

다음달 5~6일에는 본점 9층 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면적을 작년보다 2배 늘려 동시에 진행한다. 7~8일에는 9층에서만 행사를 연다. 이어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잠실점 등 총 8개 점포에서 차례로 3월 중순까지 할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30일부터 해외 유명브랜드들을 최대 70% 할인하는 대형 명품 행사를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30일부터 2월1일까지, 12~15일까지 2회 열리며 강남점은 5~8일까지, 센터시티점은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정통 명품 브랜드부터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역대 최다 350여개 명품 브랜드의 8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해외 유명 수입 브랜드 파격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오는 30일부터 2월1일까지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에서 총 35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현대 수입 남성 대전을 연다. 다음달 5~8일까지 총 75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현대 해외 패션 대전을 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최초 판매가 기준으로 행사 물량이 800억원 규모로 지난해 8월 행사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했고 110여 개 해외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동원홈푸드, '프랑스에 다녀온 붕어빵'과 협약

동원홈푸드는 29일 프리미엄 디저트 프랜차이즈 '프랑스에 다녀온 붕어빵'과 식자재 공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론칭한 '프랑스에 다녀온 붕어빵'은 페스츄리와 파이빵 반죽으로 만든 붕어빵에 팥, 고구마, 로투스 크런치잼, 애플망고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새로운 디저트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살던 붕어빵이 브랑스에 놀러 다녀와 업그레이드 됐다'는 참신한 스토리와 캐릭터 개발을 통해 젊은 층부터 중·장년 층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현재 백화점 델리 매장을 중심으로 6개 매장이 입점돼 있으며, 오는 2월 전국에 10여 개의 신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다. /박지원기자

정용진의 '데블스도어'…서민 죽이는 '악마의 문'

르포

'정용진' 이름 덕에 반포 대표 명소로 입소문…주변 상인들 "인근 치킨집까지 손님 줄어"

"재벌 기업이 영세상인들 생업인 동네 호프집이나 넘보다니요. 한심하고 허탈합니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선보인 수제맥주 전문점 '데블스도어(Devil's Door·악마의 문)'를 두고 주변상인들의 울어리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신세계푸드는 총 11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 데블스도어를 오픈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뛰어 창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블스도어라는 가게 이름은 '악마처럼 치명적으로 소비자들 유혹하겠다'는 정 회장의 포부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분에 두 달만에 서울 반포 일대 명소로 자리매김 중이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침범당한 주변 상인들의 볼멘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변 상인들 "악마의 문이 열렸다"

지난 28일 오후 7시쯤 서울 반포동 데블스도어 건너편 상가는 추운 날씨 탓인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몇 년간 이곳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A씨는 "데블스도어가 들어선 이후 피해가 만만찮다. 굴지의 재벌 기업이 하는 일이라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손을 쓸 방법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데블스도어를 최근 방문해 봤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자리를 기다릴 정도였다.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 옆에 접근성이 좋아 내가 손님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깃집이나 업종이 다른 상점은 그나마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근처 치킨집까지 데블스도어로 손님을 뺏기고 있다는 게 상인들 주장이다.

A씨는 "우리 뿐만 아니라 근처 치킨집, 생맥주를 파는 가게도 타격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처 종합병원 직원들이 우리 가게에서 종종 회식을 했는데 이제는 아들 마저 끊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세계의 이런 행보에 대해 같은 유통업계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대형 주류업계 관계자는 "신세계 같은 대기업이 빵집이나 호프집 등 골목 상권을 자꾸 침범하는 바람에 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당국이 보다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저녁 서울 서초구 반포의 '데블스도어'에 고객들이 줄을 이어 들어서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데블스도어 "사람은 많지만…"

기자는 같은 날 저녁 데블스도어를 방문했다. 도로 건너편과 상황이 사뭇 달랐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매장 직원은 "평일 저녁에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며 "주말엔 적게는 30분에서 2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가 계산할 때 대기하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다. 입구에는 대기장소가 따로 마련돼 난로는 물론 차도 구비 돼 있었다.

매장은 빈티지풍으로 1~2층 400명에 달하는 규모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대형 양조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발효조가 내부에 설치돼 고객들이 양조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개방형 주방을 적용해 고객이 직접 맥주와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맥주가격은 3900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약 20여 종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는 게 직원의 설명이다. 샐러드, 피자, 버거 등 안주도 다양했다.

고객들은 수제 맥주의 맛보다는 '정용진 부회장이 운영한다'는 데 호기심을 갖고 찾고 있는 듯 했다.

이날 방문한 손님 손모씨는 "요즘 엄청 인기 많은 '핫' 한 곳이라고 소문이나 방문했다"며 "연예인들도 자주 온다길래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이 대체 어떤 곳인가 궁금해 와봤다. 분위기가 신기하다"고 말했다.

데블스도어를 처음 찾았다는 직장인 김모씨는 "이런 술집도 있구나 하며 신기해서 처음 왔다"며 "하지만 맥주가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안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다. 노래 소리도 너무 커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안들린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사료용 아미노산>

5조원 메치오닌 시장 잡아라

CJ제일제당, 아르케마와 손잡고 8만t 규모 완공

CJ제일제당은 말레이시아에 8만t 규모의 L-메치오닌(사진) 공장을 가동하며 사료용 아미노산 메치오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장은 CJ제일제당이 프랑스 아르케마 사와 손잡고 총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완공한 시설로 시험 운전을 거쳐 이날부터 첫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5년 연구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원당과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해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으로 생산하는 메치오닌"이라며 "그동안 석유를 원료로 사용해 화학공법으로 만든 DL-메치오닌이 주를 이루던 세계 시장에 본격적인 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L-메치오닌은 DL-메치오닌과 비교해 상대적 생체이용률(체내에 흡수돼 아미노산으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측정하는 척도)이 20~40% 이상 우수한 아미노산임이 입증된 바 있다.

전 세계 50억 달러 규모의 메치오닌 시장은 사료용 필수아미노산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출 장벽이 높은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현재 독일 에보닉과 중국 아디세오, 미국 노보스, 일본 스미토모 등 4개 기업이 95%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은 메치오닌 수요가 큰 폭으로 느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도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이사는 "친환경 바이오 발효공법으로 생산한 세계 최초의 L-메치오닌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향후 세계 1위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지원기자 jw@

락앤락·써모스, 텀블러 두고 한판

락앤락, 이종석 내세워 젊은층 공략…써모스, 필리핀 공장 9월 준공

국내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과 글로벌 기업 써모스가 올해 국내 텀블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텀블러가 물병을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목받자 성장세를 눈여겨 본 것이다. 한류 배우를 내세워 젊은층 공략은 물론 신제품 출시와 물량 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밀폐용기에 집중했던 락앤락은 밀폐용기 다음으로 텀블러에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물병류의 매출 비중은 18%로 밀폐용기(33%)와 수납(20%)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최근 김준일 회장은 매출 비중이 5% 미만인 제품 700여 개를 정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안 되는 브랜드는 솎아내겠다는 전략인데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텀블러가 차지하는 사업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락앤락은 최근 중국과 함께 국내 시장 모델로 배우 이종석을 발탁했다. 밀폐용기로 굳어진 중년층 타깃 브랜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0~30대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텀블러 열풍이 커피전문점에서 시작된 만큼 젊은층 수요가 높아 이종석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이 젊은층을 끌어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올초 '별자리 텀블러'를 출시하면서 진행했던 '케이스북' 이벤트에 1150명의 응모자가 몰리는 등 이종석 효과를 봤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보온병으로 유명한 써모스는 필리핀에 새 공장을 짓고 있다. 건축 면적 3만8500㎡ 규모의 필리핀 공장은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필리핀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기존 중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소화했던 연간 3500만 개 규모에서 연간 60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12월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면 내년에는 국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립된 지 111주년을 맞아 올해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보 채널을 다각화할 예정이며 4월에 신제품 출시도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젊은층을 주축으로 개인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며 "물을 마시는 기능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락앤락 텀블러시리즈 모델 이종석

'사십견' 환자가 늘어난다

30~40대 어깨 질환자↑ …운동 부족·스마트폰 과도한 사용 등 원인

흔히 '오십견'이라 부르는 중·장년층의 어깨 질환이 이제는 30대부터 시작해 40대 환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오십견이라 부르는 질환은 '동결견(유착성관절낭염)'이다. 이 질환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또 관절낭이 유착돼 어깨가 굳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운동량 부족과 스마트폰·컴퓨터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어깨 질환의 발병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다. 40대는 물론 30대에도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집안일 등 반복적인 일이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런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깨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깨를 앞뒤로 돌리거나 가벼운 생수병이나 아령 등을 직각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팔굽혀펴기 등으로 근력을 강화해도 질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어깨 통증이 생기면 집에서 찜질요법을 하는 것도 좋다. 다만 어깨 통증이 생긴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

김병호 동탄시티병원 원장은 "예전에는 오십견이 중·장년층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었지만 이제는 사십견이라고 부를 정도로 30~40대 환자들도 많아졌다. 평소 자주 스트레칭을 하는 등 적절한 운동을 통해 질환을 예방하고 통증이 시작되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어린이집 기부

경기 광명 등 3개 지역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이 경기도 광명시 등 3곳에 총 61억원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해 기부한다.

먼저 재단은 29일 광명시에서 시립광명생명숲어린이집 기부채납식을 갖는다. 이 어린이집은 지상 3층 규모 138명 정원이다. 또 기부채납액은 22억4000만원이다.

이어 재단은 다음 달 5일 서울시 성북구에서 성북생명숲어린이집(기부채납액 22억원)의 기부채납식을 준비하고 다음 달 11일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기부채납액 16억2000만원)을 오픈한다.

이번 기부로 재단은 지금까지 총 10개소에 212억원을 기부하게 됐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운영사업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운영되며 총 3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이화의료원, 종합병원 부문 2년 연속 '명예'

이화여대 의료원(원장 이순남)이 지난 27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2015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의료원은 최근 발표된 암과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이름을 올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은 병원 방문 당일 진료와 검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암 진단 후 1주일 내 수술이 가능해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권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이번 수상은 소비자로부터 2년 연속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구스 나잇 3.0' 파티 열려

이비스 스타일 서울 명동 오픈 전 깜짝 이벤트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가 오는 3월 그랜드 오픈 예정인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의 프리 오프닝을 축하하기 위해 30일 '구스 나잇 3.0' 파티를 연다.

호텔 21층의 루프톱바에서 진행되는 이번 파티에는 호텔의 주요 고객이 초청되며 호텔의 프리 오프닝을 축하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특히 미스&미스터 이비스 스타일 선발 이벤트의 메이크업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호텔 숙박권을 주는 행운권 추첨도 준비된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브랜드는 호텔 체인 그룹인 프랑스 아코르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비스 브랜드 중 하나로 유니크함과 다양한 디자인을 강조한 이코노미 호텔 브랜드다. 또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명동은 일부 객실만 운영하다 3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황재용기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웃음 짓는 그날까지

존슨앤드존슨, 어린이 건강 증진 캠페인 실시

한국존슨앤드존슨(대표 제임스 아마따 우튼)이 '타이레놀' 출시 6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린이 타이레놀과 함께 웃음 지어요'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회사는 캠페인 공식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좋아요'가 1만개 이상 모이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1004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또 초보 엄마와 아이의 웃음을 지켜줄 올바른 건강 육아 정보를 전하는 '맘&베이비 똑똑 건강클래스'가 열린다. 클래스는 다음 달 12일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빠르고 마음 편한 통증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타이레놀은 감기와 해열에 효과가 있는 해열진통제로 어린이 몸무게와 성장단계에 맞춰 현탁액과 츄어블정 등 총 3가지 제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롯데칠성·제주도, 노지감귤 소비촉진 협의

롯데칠성음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제주도청에서 노지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노지감귤 유통처리와 감귤 농축액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사정을 알리고, 롯데칠성음료 측에 감귤 가공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제주공장을 24시간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는 감귤 농축액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인 제주공장을 2월 말까지 연장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산 감귤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생산량 증가, 품질 저하, 저급품 감귤 출하 등으로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지원기자

파국일까 대타협일까

Issue & View
넥슨·엔씨 갈등 결말은?

/김민지기자 kmsoo@metroseoul.co.kr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게임업계 우려 한 목소리

김정주 넥슨 회장

"사태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 양사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모 게임단체 관계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결국 잠시 중단됐던 핫라인을 복구해 타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모 게임업체 홍보팀장)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에 불거진 경영권 분쟁으로 국내 게임업계가 뒤숭숭하다. 온갖 억측과 루머가 난무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악재가 산적한 게임업계가 이번 사태로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확산되는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지분 15.08%를 보유하고 있는 넥슨은 지난 27일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년 반 동안의 협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넥슨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윤송이 사장 승진 문제가 거론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의 반응은 싱담이 자갑다.

모 게임업계 관계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앞세운 외국계 게임사 라이엇게임즈에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안방을 털린 국내 1, 2위 업체가 경영권 분쟁까지 벌인다는 사실에 게이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선도 이번 건으로 악화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경영권 다툼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정주 넥슨 회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초 협업해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진 2012년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의 사태를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사 대표 조만간 만남 가능성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월로 예정된 엔씨소프트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가열될 조짐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연금(엔씨소프트 지분 6.88%)과 노르웨이국부펀드(GPFG 2.44%)를 우호세력으로 만들려는 양측의 물밑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문도 들린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일각에서는 극적 화해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30년 지기 서울대 공대 선후배 사이인 두 회사 대표가 국내 게임업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에 정말 관심 있었으면 보다 정교하게 접근했을 것 같다"며 "이번 공시는 개발자 자존심이 강한 엔씨소프트에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는 넥슨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게임 즐기는 당신은 기부천사

문화재 보호·우물 개발 등 눈길

게임하면 기부는 덤. 게임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하면서 게임 업계가 특색을 살린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고스톱 게임을 즐길수록 기부금을 적립해주는 세계 프로모션 '천만닢 개 오으기'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고스톱 신맞고 이용자라면 게임 이용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일정 미션을 수행하면 NHN엔터테인먼트와 해피빈이 약정한 기부처에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기부도 눈에 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는 해외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전통 문화재 보호 활동을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킨 '팝스타 아리' 외 6개별 판매금액에 회사 모금을 더해 사회환원 기금 7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최근에는 조선시대 국왕 행차 시 행렬 주변에 세우는 용도의 의장물 '노부' 보존처리 작업은 완료해 화제를 모았다.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와 사이퍼즈의 오프라인 게임대회 '액션토너먼트'의 관람티켓 판매금 1000만원 전액을 아프리카 지역 우물 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지난 26일 전달했다.

넥슨은 지난해 e스포츠 리그 최초로 전 경기 관람 티켓 유료화(2500원)를 도입해 모든 경기 매진행진을 이어가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넥슨은 기부를 기념해 다음달 5일까지 '생명의 물 프로젝트' 이벤트 등을 벌인다.

노정환 네오플 이사는 "액션토너먼트 관람객 편의를 위해 유료 관람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지역에 생명의 물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를 만족시키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희기자 jjhcs@

레벨 높인 영웅들이 온다

영웅 포 카카오 업데이트 '초월' 시스템 등 도입

영웅 포 카카오(for Kakao)가 신무기를 장착했다.

네시삼십삼분은 모바일 액션 RPG '영웅 포 카카오'에 초월, 랜덤 진화 등 기존 영웅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업데이트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유저들이 가장 원했던 초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6성 40레벨 5강화 영웅의 최대 레벨을 상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1회 초월을 강화하면 최대 레벨이 42로 2단계 상향된다.

4성 또는 5성으로 진화한 영웅을 다른 영웅으로 변경하는 '랜덤 진화' 시스템도 추가했다. 랜덤 진화로 태생 4, 5성의 희귀 영웅을 얻을 수 있다.

영웅의 능력을 높여주는 '룬' 중 가장 강력한 '왕좌의 룬'을 얻을 수 있는 '왕좌의 탑' 최대 층이 10개 층 늘어났다. 60층을 돌파한 이용자는 3~5성급 왕좌의 룬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신규 이벤트 영웅 4종도 발표했다. 제갈량, 환충, 형가, 보위 등 4종 영웅은 다음달 18일까지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 등 기본 능력치가 30% 증가한다.

한편 '영웅 포 카카오'는 한국의 이순신,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 중국의 황비홍, 관우 등 세계 각국의 실존 영웅이 등장하는 액션 RPG다. 200여 개의 스테이지 일대일 PVP(유저 간 전투), 왕좌의 탑, 시련의 탑, 피곤 던전 등 끝없이 즐길거리가 자랑거리다.

/이국현기자

오만과 편견 주연 완벽 소화 최진혁

상경한 패기남…"박경림은 은인"
작년에 빚 다 갚아 이제야 군입대

배우 최진혁(30)은 강단 있는 남자였다. 가수 지망생으로 상경한 그는 "패기 있었다"고 예전의 모습을 추억했다.

"거칠었어요. 승부욕이 엄청났죠. 연예계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기 죽어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만든 모습이기도 해요. 당시 록발라드가 유행이어서 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악기를 배우려고 서울로 와서 박경림을 만났죠. 지금 돌아보면 누나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소개해주고 밥도 먹였어요. 은인이죠. 제게 배우의 길도 추천했어요. 가수 안 하길 정말 잘한 거 같아요. 연말 연기 시상식에서 노래를 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웃음)"

최진혁은 KBS 청춘 드라마 주인공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오디션'(2006)에 참가했다. 같은 해 KBS2 '일단 뛰어'로 데뷔했고 '내 사랑 금지옥엽' '파스타'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그러나 존재감이 드러난 건 '구가의 서'(2013)부터였다는 평가다. 이후 '상속자들' '응급남녀' '운명처럼 널 사랑해'를 거쳐 '오만과 편견'으로 지상파 미니시리즈 주연으로 자리했다.

최진혁은 다작한 덕분에 지난해 빚을 전부 갚았다.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이 하자는 주의죠. 배우가 되고 몇 번씩 뛰쳐 나가고 싶었어요. 먹고 살만해지기 전까지는 힘든 직업이에요. 특히 저는 외동 아들이고 부모님이 나이 들어 편찮아지니까 가장 역할을 해야 했죠. 일반 월급생이보다도 못 벌었어요. 먹고 살만하게 된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집에 빚이 있었는데 제가 갚아야 했죠. 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신경을 쓰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도 배우는 인생을 배우는 직업인 거 같아요. 요즘 깨닫고 있어요."

MBC '오만과 편견'을 마지막으로 입대한다. 이에 대해 그는 "허벅지에 힘 주면서 버텼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한계에 부딪히면 미친 듯이 째고 싶어져요. '오만과 편견' 때도 물러나면 끝이라는 심각으로 버텼죠. 원래 책임감이 강해요. 주인으로서 드라마를 어깨에 메고 있는 상황이었죠.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 들 때 가장 힘들거든요. '오만과 편견'은 유독 그런 순간들이 많은 드라마였어요. 군대를 아직 안 가서 그런지 구동치처럼 다나까 말투를 써 본적이 없거든요. 대사 같기만 해서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죠. 내용이 어려운 작품이었는데 배우들은 글로 읽었거든요. (화면으로 보는 것 보다) 더 어려워요. 특히 (주연인) 제가 헤매면 시청자도 헷갈리잖아요. 처음으로 노트에 쓰면서 대본을 공부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잠을 못 잤죠."

'오만과 편견' 구동치는 공과 사가 확실한 인물이다. 최진혁은 검사의 예리한 수사력, 연인과의 달달한 사랑을 조화시켜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능청스러워졌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능구렁이 철면피가 됐어요. 예전에는 시선이 느껴져서 부끄러워했는데 요즘엔 촬영을 시작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시기가 애매모호한데 '구가의 서' 끝나고 연기 열정이 많이 생겼죠. (이번 연기) 만족하진 않는데 아쉬운 건 없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한 작품이지만 다 쏟아내서 후회하진 않습니다."

/전효진 기자 zero… @metroseoul.co.kr

사진/라이브러리하우스 제공 디자인/최송이

Star bag

'블러드'로 안방극장 데뷔

배우 손수현이 KBS2 새 월화극 '블러드'로 안방극장에 데뷔한다. 그가 맡은 민가연 역은 암병원의 유일한 국내파 레지던트다. 실수가 많지만 성실한 인물로 주인공 박지상(안재현 분)을 존경하며 따른다. 뱀파이어 외과의사의 활약상과 멜로를 담은 판타지 메디컬 장르다. 다음달 16일 첫 방송.

'마음 프로필' 캠페인

방송인 이동우가 '마음 프로필' 캠페인을 30일 시작한다. '마음 프로필'은 '불통 불신 불화' 이른바 '3불 시대'에 진정한 소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우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거리낌 없이 즐겁게 소통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피빈 HS애드, SM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한다.

이준과 멜로 호흡 맞춰

배우 고아성이 SBS 새 월화극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이준과 호흡을 맞춘다. 고아성이 연기할 서봄은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한인상(이준 분)이 엄청난 귀공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사랑에 빠지게 된다. 상류층의 속물의식을 꼬집는 블랙 코미디 장르다. 다음달 23일 첫 방송.

사극으로 파격적 변신

배우 강하늘이 사극 영화 '순수의 시대'로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 드라마 '미생'에서 장백기 역으로 인기를 모은 그는 이번 영화에서 오로지 쾌락만 쫓는 인물 진을 연기했다. 왕의 사위로 관직을 넘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비뚤어진 방식으로 욕망을 표출한다. 다음달 개봉.

배두나, 얼굴에 무궁화 그리고…

'주피터 어센딩'서 한국 애정 표현

배우 배두나가 할리우드 영화 '주피터 어센딩'에 출연한다. 얼굴에 무궁화 무늬를 그리고 등장해 관객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주피터 어센딩'은 인류를 구원할 운명을 지닌 주피터가 절대자로서 깨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SF 액션 블록버스터다. '매트릭스' 시리즈의 워쇼스키 남매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광활한 우주 속 지구는 외계 종족의 식민지 중 하나라는 기발한 설정을 다루고 있다.

배두나는 '클라우드 아틀라스'로 호흡을 맞춘 워쇼스키 남매 감독과의 인연으로 '주피터 어센딩'에 합류하게 됐다. 수터들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특히 왼쪽 눈과 이마에는 무궁화 무늬를 그리고 등장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배두나는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주피터 어센딩'에 이어 워쇼스키 남매 감독이 연출하는 미국 드라마 '센스8'에도 연이어 출연했다.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 세계적인 명감독들과 꾸준히 함께 작업하고 있어 이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주피터 어센딩'은 다음달 5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온라인 화 이슈

이본 '화끈 입담' 여전하네

방송인 이본(사진)이 솔직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본은 28일 MBC '라디오스타' 410회 '수요일 수요일은 라스다' 특집에 출연해 솔직하고 화끈한 입담을 뽐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떠돌았던 열애설에 대해 "다 지나간 얘기인데 뭐 어떠냐"며 솔직하게 밝혔다.

MC 김구라가 "H.O.T 장우혁, R.ef 이성욱과 어떤 관계였느냐"고 묻자 이본은 "이성욱이 아니라 성대현"이라고 정정까지 했다.

그는 "성대현은 당시 굉장히 파서너블했다. 좀을 이슬하하게 주는 데 그 맛이 있었다"며 "그리고 윤전도 기가 막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우혁에 대해선 "6살 연하로 학교 다닐 때 방에 내 브로마이드를 붙여놨다고 하더라"며 "방송에서 만났는데 절대 누나라고 하지 않았다. 굉장히 마초기질이 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로 제 2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김건모, 김현정, 쿨의 김성수 등이 함께 출연했다. /유지은기자

진세연, 강호동 아내로 변신?

배우 진세연(사진)이 강호동의 아내로 변신했다.

진세연은 28일 KBS2 새 예능프로그램 '투명인간'에 게스트로 출연해 MC 강호동과 단발머리 꾸며놓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신혼 부부 연기를 펼쳤다.

강호동은 "오늘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겠다"며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고 진세연 역시 그에게 밥을 떠먹여주며 받아쳤다.

강호동은 직원에 등장하자 진세연을 가리키며 "제 아내인데 이제 방송을 한다"며 "오늘이 예능 첫 데뷔다"라고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투명인간'은 출연진이 직접 회사를 찾아가 직장인들과 함께 벌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유지은기자

"음악으로 돈 벌 생각 없다"

힙합그룹 팬텀 한해, 솔로 앨범 '365' 발표…삼고초려 끝 디가리 피처링

"음악으로 돈 벌고 싶단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직까지 음악으로 큰 돈을 벌어보지 못해서 패기만 있나 봐요."

3인조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의 한해(25·본명 정한해·사진)가 30일 솔로 앨범 '365'를 발표했다. 한때 힙합아이돌그룹 블락비에도 몸담고 있던 그가 혼자 이름을 걸고 앨범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해는 자신의 이름이 '한해'라서 제목을 '365'라고 정한 것도 있지만 지난 365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기록한 노래를 담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2011년 첫 앨범을 발표한 팬텀은 힙합을 바탕으로 대중 친화적인 음악을 추구했다. 이번 앨범은 팬텀의 색깔과 전혀 다르다.

"가사에 욕도 없어요. 최대한 날것에 가깝게,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죠. 팬텀의 멤버였을 때나 다른 가수 곡에 피처링 할 때와는 전혀 달라요. 팬텀으로 활동할 땐 멤버들이 추구하는 음악색이 서로 달라 양보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솔로 앨범을 다 만들고 나니 심의에 통과할 만한 곡이 거의 없어 보이더군요. 팬텀의 한해를 좋아했던 분들에겐 다소 충격적일 것 같아 조금 걱정돼요."

타이틀곡 '올해의 남자'는 시상식을 콘셉트로 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음반이니 상에나 성적 욕심이 날 법하다.

"회사에 미안하지만 앨범 성적은 신경 안 써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건 힙합 팬의 반응이죠. 제가 힙합 음악 팬이니까요. 그들이 과연 한해의 음악을 어떻게 들을지 궁금해요. 첫 솔로 음반이니까 부담됐을 것 같다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오히려 재밌었어요. 놀면서 만든 앨범이죠."

그는 이번 앨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유명 래퍼들에게 피처링 의뢰를 했다. 특히 사춘기 시절 우상이었던 디가리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부탁했다.

"디가리 형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다짜고짜 피처링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첫 번째 문자는 무시당했어요(웃음). 세 번 부탁하니 승낙해주셨죠. 첫 솔로 앨범이니까 같이 해달라고 말 하기가 어려웠어요. 한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음악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앨범의 목적은 다음 앨범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거예요."

한해 '올해의 남자' 티저 스틸

/김지민기자 aeok.ri@metroseoul.co.kr

최우식 "저 완전 호구예요"

tvN '호구의 사랑'서 유이와 러브라인

배우 최우식이 호구임을 인증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tvN 새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최우식은 "실제로도 좀 호구 같다"며 "사랑 앞에서 소심하고 자잘한 면이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최우식은 백수에 가까운 일러스트 어시스트 만화가 강호구 역을 맡았다.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인 강호구는 첫사랑이자 국가대표 수영 선수 도도희(유이)와 사랑하게 된다.

유이는 "우식씨는 호구처럼 정말 착하다. 현장에서도 조금 남자다웠으면 좋겠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호구의 사랑'은 최우식의 첫 주연 작이기도 하다.

그는 "처음 표민수 감독과 만났을 땐 내가 강호구 역인 줄 몰랐다"며 "감독과 일하고 싶어서 비중 적어도 되니 잘 살리겠다고 읍소했다"고 말했다.

'호구의 사랑'은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풀하우스' '그들이 사는 세상' 표민수 감독과 '꽃미남 라면가게' '직장의 신' 윤난중 작가가 함께 제작한다.

'일리 있는 사랑' 후속 작으로 내달 9일 오후 11시 첫 방송된다.

배우 유이와 최우식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효진기자 jeonhj86@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기획 tvN · 제작 MI

박태환 선수 생명 끝나나?

사례 보면 최소 2년 징계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 주사제인 '네비도'가 검출된 '마린보이' 박태환(26·사진)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관심이다.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수영연맹(FINA)이 공개한 징계수위를 보면 박태환은 2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김지현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기관지 확장제인 클렌부테롤이 검출돼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중국 수영스타 쑨양은 도핑 검사에서 혈관확장제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나와 자격정지 3개월을 부과받았다. 쑨양은 평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트리메타지딘이 함유된 약제를 복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해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육강화제의 일종으로 금지약물의 대명사인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이 검출된 경우는 대부분 자격정지 2년을 받았다. 브라질의 에반드루 비나시우스 시우바, 우크라이나의 옥사나 마르추크,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 등이 지난해 도핑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계열 약물 때문에 2년간 선수 자격을 잃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고려될 경우 줄어들기도 하지만, 가중 처벌이 적용되면 4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박태환은 주사를 놓은 의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스위스에 거주하는 도핑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감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태환의 운명을 결정할 FINA 청문회는 내달 27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최근홍기자

장하나 LPGA 데뷔전 첫날 선두권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장을 던진 장하나(23·비씨카드·사진)가 시즌 개막전에서 깔끔한 플레이를 펼치며 올해 LPGA 무대 전망을 밝혔다.

장하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골든 오캘러 골프클럽(파72·6541야드)에서 열린 개막전 코츠 골프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5개를 골라냈다. 5언더파 67타를 친 장하나는 일몰로 출전 선수들이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한 가운데 리더보드 상단(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들의 강력한 라이벌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비롯해 제시카 코르다(미국), 아사하라 무뇨스(스페인)가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자리잡았다.

장하나는 지난해 12월 LPGA 투어 퀄리파잉스쿨을 통과해 2015 시즌 출전권을 땄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버디 2개, 버디 1개로 1언더파 72타를 쳐 공동 15위로 첫날을 마쳤다. 최나연(28·SK텔레콤)은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선호기자

'퇴장' 호날두 2경기 출전 정지

상대팀 선수와의 물리적 충돌로 퇴장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사진)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두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이번 징계로 오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다음달 4일 세비야와의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 24일 열린 코르도바와의 원정 경기 도중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 에디마르와 공을 다투다 에디마르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항의하던 다른 선수의 얼굴을 밀쳐 레드카드를 받았다.

그는 다음달 7일에 열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 다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흘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날두는 지난해 2월에도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경기 도중 레드카드를 받은 뒤 심판을 조롱하는 제스처를 취하다 세 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차두리·손흥민·곽태휘(왼쪽부터) 등이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가라 오벌에서 훈련하며 호주와의 2015 AFC 아시안컵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승카드 '좌 흥민-우 교원'

내일 아시안컵 결승전 예상라인업　차두리 태극마크 마지막 '불꽃'

한국 축구 대표팀이 31일 55년 만의 아시아 정상으로 가는 最후의 한판승부를 펼친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최국 호주와 2015 아시안컵 결승전을 치른다. 한국은 1956년 홍콩, 1960년 서울 대회에서 우승한 뒤 55년 동안 아시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호주가 홈 어드밴티지는 있지만 우리도 전력 공백이 없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호주전 예상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최전방 공격수는 '군데렐라' 이정협(24·상주 상무)이 선다. 좌우 윙어에는 손흥민(레버쿠젠), 한교원(전북 현대).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남태희(레퀴야)가 출격할 가능성이 높다. 발 빠른 갖춘 이근호(엘 자이시)는 2선 공격수로 지원 사격을 한다.

중앙 미드필더 듀오는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과 박주호(마인츠)가 포진해 공수를 연결한다. 좌우 풀백은 김진수(호펜하임), 차두리(FC서울), 센터백으로는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맡는다.

골키퍼 장갑은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끼고 수비진과 함께 무실점 전승을 수호할 대세를 갖추고 있다.

대회 초반 감기몸살로 고생했던 손흥민이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어 호주전 득점포 가동이 기대된다.

이정협은 "8만여 호주 관중이 함성을 지르겠지만, 절대로 기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대우 한국 선수단장은 "부상자가 한 명도 없다"며 "감독, 코치, 의무진, 올라서였사, 주방장까지 모두 합심해 선수들이 절정의 상태로 결승전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주기자 mk.m@metroseoul.co.kr

호주전 선발 라인업

FW: 이정협
MF: 손흥민, 남태희, 이근호, 한교원 / 기성용
DF: 김진수, 김영권, 곽태휘, 차두리
GK: 김진현

4-1-4-1

우승하면 컨페드컵 출전 자격… 최소 18억 상금

아시안컵에는 우승 상금이 전혀 없다. 하지만 아시안컵 우승국은 이 지역 챔피언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출전할 자격을 얻는다.

컨페더레이션스컵은 월드컵 본선을 1년 앞두고 대회의 시설이나 운영을 점검하는 리허설의 성격을 지닌 대회다.

2013년 브라질에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는 개최국 브라질,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북중미의 멕시코, 남미의 우루과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아시아의 일본, 오세아니아의 타히티 등 8개국이 대회에 나왔다.

FIFA는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국에 출전수당과 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아시안컵 상금은 없더라도 우승하면 컨페더레이션스컵 출전으로 확보하는 금전적 이익이 있는 셈이다.

FIFA는 2013년 브라질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 때 총상금 2000만 달러(약 217억원)를 내걸었다. 우승국 브라질에 410만 달러(약 45억원), 준우승국 스페인이 360만 달러(약 39억원), 3위 이탈리아가 300만 달러(약 33억원), 우루과이가 25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았다.

준결승부터 시작되는 토너먼트에 나서지 못한 일본, 타히티, 멕시코, 나이지리아에도 170만 달러(약 18억4000만원)씩이 지급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아시안컵의 위신을 고려해 상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장애인 일터 더 만든다

고용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4대 중점과제가 담긴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먼저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공표 대상과 부담금 부과 방식을 변경한다. 현재는 연 2회에 걸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를 공표하고 있는데 공표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해 공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600여 곳의 명단이 공표됐다면 이제는 600~800곳으로 줄어든다.

또 고용부는 의무 고용인원보다 적게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내야 하는 부담금은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 방식으로 바꾸고 가산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고용이 저조할수록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가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직접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현행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늘린다.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고용인원으로 간주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작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덜 주는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인가받은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57.1%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또 고용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를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진로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작년 서울 청년 실업률 10%↑

2000년 이후 처음…55세 이상 고용률은 최고치 기록

지난해 서울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간한 '서울 고용구조 변화·특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체 실업자는 24만1000명으로 전년(21만명)보다 14.8%(3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청년 실업자는 전년 8만3000명보다 20.5%인 1만7000명 증가한 10만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30~59세 중 장년 실업자는 1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8%(1만명), 60세 이상 실업자는 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1.4%(3000명) 늘었다.

서울 청년 실업률 추이
15~29세 실업자 전년 대비

2000	2004	2008	2012	2013	2014년
8.1	9.0	7.7	8.3	8.7	10.3%

자료/서울시

아울러 전체 실업률은 4.5%로 2013년(4.0%)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 전년(8.7%)에 비해 1.6%포인트 상승한 10.3%로 집계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55세 이상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5세 이상 취업자는 2004년 63만3000명에서 지난해 111만5000명으로 48만2000명 늘었다. 또 55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은 이미 2012년부터 청년층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연령별 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55세 이상은 46.4%로 1989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온돌마루 설치된 '서해 금빛열차' 서해 금빛열차가 29일 노지 서울역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열차는 아산·예산·홍성·보령·서천·군산·익산 등 서해 7개 지역의 관광지로 떠나는 관광전용열차로 한옥식 온돌마루와 건식 족욕카페 등을 갖췄다. /연합뉴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서 숲 가꾸기 금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숲 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죽은 나무에 주로 알을 낳아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숲 가꾸기를 진행해 재선충병이 퍼지는 경우가 있다"며 "숲 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으깨거나 약제로 훈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성동구, 관리비 의혹 특단조치 약속"

김부선, 구청장과 면담

아파트 난방비와 관리비 관련 비리를 폭로했던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면담을 했다.

김씨는 면담 후 "정 구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긴 싸움의 끝이 보여 총이라도 주고 싶고 행복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월 진행된 아파트 개별난방 공사와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통장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구청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아파트 동대표 측에서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가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에 관리비 입출금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구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대변인 이병렬 ▲재정·경제감사국장 이덕희 ▲지방행정감사국장 최용준 ▲감사청구조사국장 박영석 ▲전략감사단장 황선호

◇과장 전보 ▲첨단감사지원단장 직무대리 이준재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유병호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전보 ▲국제협력관 박선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주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영국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류경희

◇고위 공무원 파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태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간선도로과장 김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창욱

◇과장급 파견 ▲국민안전처 장구중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곽세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연구위원 김남두 ▲연구위원 김성옥

◇임명 ▲통신전파연구실 전파정책그룹장 김득원

■코웨이

▲마케팅본부 상무 전략부문장 옥경수 ▲환경가전사업본부 신채널부문장 손경주

■포스코

◇전무 보임 ▲가치경영실 미주대표법인장 겸 투자전략장 김원기 ▲가치경영실 인도네시아제철법인설립추진반장 김지용 ▲가치경영실 베트남마케팅법인설립추진 반장 남삭 ▲정도경영실장 이우균 ▲철강사업본부 철강솔루션마케팅실장 겸 TAC 담당 장인화 ▲철강생산본부 광양제철소장 안동일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장 김학동 ▲재무투자본부 신사업관리실장 유철

◇상무 보임 ▲가치경영실 홍보위원(국제협력 담당) 곽정식 ▲가치경영실 재무위원(사회관리 담당) 정기섭 ▲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선구 ▲철강사업본부 글로벌마케팅조정실장 김석범 ▲철강사업본부 신제품마케팅실장 이원부 ▲철강생산본부 연구위원(FINEX연구개발추진반 담당) 이상호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 최종진 ▲철강생산본부 포항제철소 안전설비담당 부소장 조일현 ▲철강생산본부 광양제철소 행정담당 부소장 김순기 ▲철강생산본부 광양제철소 안전설비담당 부소장 박주철 ▲재무투자본부 철강기획실장 김홍수 ▲재무투자본부 신사업기획실장 최순더 ▲재무투자본부 원소강원료실장 신탁균 ▲재무투자본부 스테인리스원료실장 유병욱 ▲경영인프라본부 HR실장 장원준 ▲경영인프라본부 PR실장 한성희 ▲경영인프라본부 설비자재구매실장 김학용 ▲경영인프라본부 프로젝트지원실장 이덕락 ▲경영인프라본부 정보기획실장 박미화

■국립공원관리공단

◇1급 승진 ▲생태관리실장 박기원 ▲한려해상 전원재생 정수운

◇2급 승진 ▲정보지원실장 주홍준 ▲환경관리부장 최병기 ▲환경기술부장 정찬권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손영임

◇본부 처 부장급 전보 ▲감사실장 최본석 ▲미래전략실장(TF) 나공주 ▲총무부장 송형철 ▲인재개발부장 김철수 ▲공원계획부장 하영임 ▲탐방문화부장 이용헌 ▲방재관리부장 이순찬 ▲공원시설부장 김두한 ▲행사기획감독(TF) 박진우 ▲감사부장 김진태

◇공원사무소장급 전보 ▲오대산 손동호 ▲월악산 신종두 ▲북한산도봉 이수식 ▲무등산 이경석 ▲지리산북부 한유환 ▲지리산남부 ?기식 ▲경주 이수현 ▲한려해상동부 김종희 ▲가야산 윤요준 ▲다도해상 김순택 ▲소백산북부 권철환 ▲월출산 김희봉 ▲무등산동부 김윤우 ▲종복원기술원 손동주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장 한유찬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장 안시열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김영태 ▲국민안전처(중앙재난안전상황실) 김상서

■아리랑국제방송

▲TV편성센터장 김도경 ▲시사보도제작센터장 직무대행 박형상 ▲문화교류제작팀장 김여름

부고

▲김석석(GS건설 플랜트프로젝트 과장)씨 부친상=28일 광주 광역시 북구 운암동 현대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제1분향소, 발인 30일 오전 6시 062-570-0444

▲김범식씨 별세, 김문수(미국 거주)·광원(전 코스모 사장)·광민(미국 거주)씨 모친상, 김연산(전 트로필리 이사)씨 조모상=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다우니 소재 장례식장(California Mortuary 90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발인 30일 오후 4시, 562-922-4393

▲박범대씨 별세, 박옥선(두루엔지니어링 수지신부 부사장)·상균(국민일보 편집부 부장)·창선(알토 컨설턴트 전무)씨 부친상=29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31일 오전 7시 02-2030-7603

▲정죽근씨 별세, 최흥범(코스콤 경영지원부 부장)·정남욱(OCI 상사 영업부장)씨 장인상=28일 오전 1시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4호, 발인 30일 오전 10시 02-841-3152

▲김동완 전 한국여구위원회 상근위원씨 별세=29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장례식장 2층 1호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33-741-1911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대법 판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사진)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허위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관련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 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다음 달 9일 서울고법에서 전 고된다.

/유선준기자 sun.un@metroseoul.co.kr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어요" 서울시 보육교사들이 29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 종합컨설팅에 참석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아동학대의 기준과 처벌법은 물론 스트레스 진단과 관리법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프랑스 테러사건 등 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 합동으로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테러 방지 종합훈련 실시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3시부터 40분가량 서울역 광장에서 수도방위사령부·코레일·서울시 등 18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160명이 참여하는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언론사 테러사건 등 국내외 테러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이번 훈련은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이 협조해 단계별 대응절차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찰은 경찰통제선 구축과 사상자 구호, 폭발물 처리 및 오염지역 제독, 테러범 진압작전 등으로 훈련을 전개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가 중요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외국 공·관저 등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경찰특공대 등 대테러지원부대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김기춘, 심재륜 전 고검장 등 고소 취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지난해 5월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수사 검사를 바꾸는 언사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뺑기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고소를 당했다.

문학평론가 김갑수씨는 같은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때 검찰 수사를 받는 구원파의 현수막에 등장했던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표현을 두고 '김 실장이 구원파를 비호했다가 버렸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발언해 함께 고소당했다.

김 실장은 심 전 고검장의 종편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실은 신문기자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유선준기자

"가습기 살균제 탓 사망, 국가 책임 없다"

유족들, 소송서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인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계 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이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는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 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이 조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유선준기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필리핀 등 본거지 · 다단계 방식으로 몸집 키워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39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9)씨 등 6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공급한 박모(41)씨 등 5명과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2?)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고향 지인 사이인 김씨 등은 필리핀 등지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른 회원을 추천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3개월마다 바꾸면서 2년 6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께 이들 중 1명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꼬리가 잡혔고 지난 11월 검찰의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784개를 추적한 끝에 약 1년만에 줄줄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일당 이외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4명을 쫓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숨긴 수익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신한금융그룹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